



너와 나, 함께하는 나눔의 여정  
소중한 이와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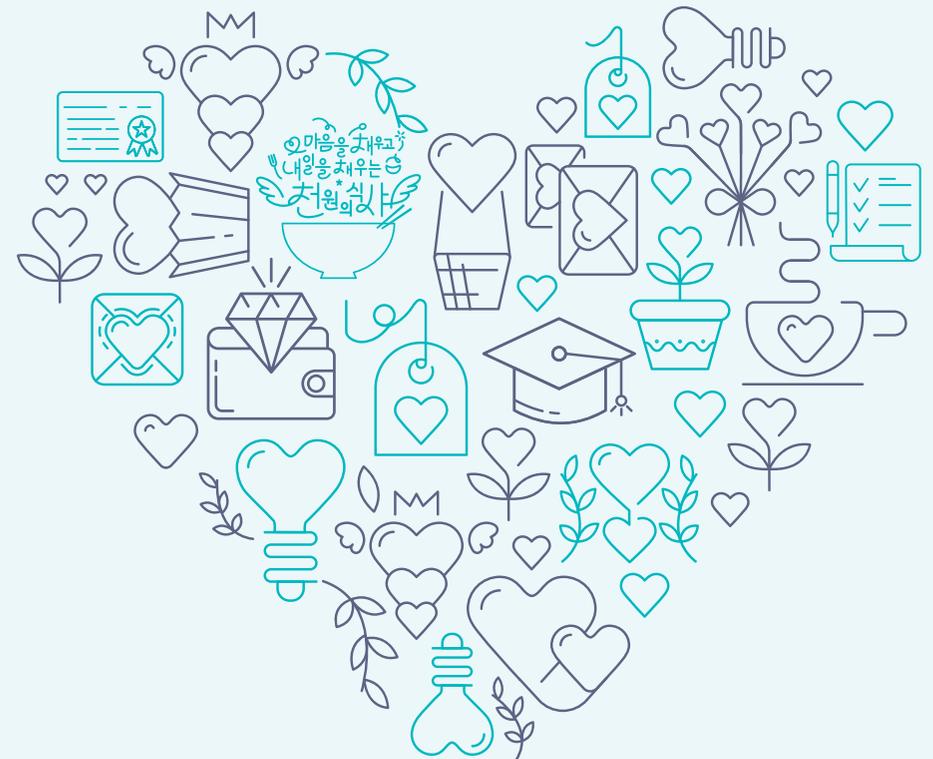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전화 02-871-8004 | 팩스 02-871-2458 | 이메일 snuf@snu.ac.kr | 홈페이지 www.snu.or.k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 8 회 •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 목차



<b>심사평</b>	심사위원장 황선엽 교수	05
<b>수상소감</b>	최우수상 박상민	09

## 수상작 소개

<b>최우수상</b>	황금빛 식사쿠폰으로 황금빛 꿈을, 천원의 식사로 나누는 꿈을.	15
<b>우수상</b>	햇살을 믿는 이들을 위하여	21
	천 원에서 시작된 이야기	25
<b>장려상</b>	하루 식비 삼천 원에 기뻐하던 나에게	31
	천원의 식사, 따뜻한 한 끼가 준 큰 울림	35
	그녀와 아이, 그리고 나의 여름	37
	아이들의 상상은 다음 문장에서 계획됩니다: 섬마을 재능 기부 이야기	41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 콘서트홀 나눔 이야기	45

• 제 8 회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심사평



---

## 심사평

---

황선엽 교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7년에 처음 시작된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나눔 공모전이 이번으로 제8회를 맞게 되었다. 대학신문사와의 인연으로 이 공모전의 초창기 심사를 맡았었는데 수년 만에 다시 심사를 맡아 심사평을 쓰는 처지가 되었다. 이번에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글 36편과 기타 32편이 투고되었는데 초창기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발전재단과 관련된 기부만이 아니라 나눔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기들도 여럿 있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천원의 식사와 관련된 경험을 다룬 내용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기부와 나눔이 나와 거리가 먼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으로 자리 잡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눔 수기 공모전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자리잡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공모전이 자신의 소소한 경험을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일상 속의 작은 나눔이라는 문화가 확산되는 데 조금은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응모된 68편의 글 모두 소중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기에 나름의 의의와 가치를 지니지만 공모전의 특성상 일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해야만 하였다. 우선 68편의 글 중 20편을 수상 가능작으로 선별하여 본선에 올렸다. 그리고

이 20편을 다시 5명의 심사 위원이 정밀 검토한 후 의견을 모아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5편을 선정하였다. 심사할 때에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였는지, 소개된 사연이 얼마나 특색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이 진솔히 잘 드러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지 등을 참조하였는데 수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위원 모두가 이견 없이 합일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최우수상은 2010년대 가난한 고시생으로 학교를 다니며 학생회관의 1,700원짜리 마술과 같은 식사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서술한 분에게 돌아갔다. 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대학원 공부를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이전의 1,700짜리 식사가 천원의 식사로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마술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후배들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심사 위원 전원이 최우수상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의 합치를 이끌어내었다.

우수상은 우선 서울대 동창회 편집팀에서 동창회 신문을 만드는 분에게 돌아갔다. 학교 안의 동창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천원의 식사’ 캠페인과 ‘키오스크 기부’ 도입 소식을 접하고 소액을 기부하였음에도 학생 식당 아너월 제막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너월에 있는 것이 너무나 축스러웠다는 이야기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수상의 다른 한 편은 서울대 재학 중 신양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졸업 후 장학금을 기부하기 시작한 분이 선정되었다. 비록 소액이지만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진솔한 마음이 잘 드러난 글이었다.

장려상 5편은 음대 재학생을 둔 학부모님, 천원의 식사의 도움을 많

이 받았다는 외국인 유학생, 섬마을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친 경험을 쓴 학생, 천원의 식사에 대한 감동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식으로 작성한 학생, 이주여성상담소에서의 실습과 봉사에 대한 글을 쓴 학생이 각각 선정되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실천한 나눔을 잘 보여준 글들이었기에 수상작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나눔의 문화를 지속시키고 더 진작시키는 데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나눔 공모전이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분과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평을 마친다.



---

## 수상소감

---

최우수상 박상민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민 이라고 합니다. 제8회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나눔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수상결과 알림 메일을 받아본 뒤에, 아내와 어안이 병병하여 몇 번 이고 메일을 다시 읽어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제가 공모전에 제출했던 글도 다시 꺼내와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보여드리고 큰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좋게 읽어봐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이런 큰 기회를 마련해주신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글을 쓸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켜 준 사랑하는 우리 학교, 서울대학교와 그 서울대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직원분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기부와 나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실천해 오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생활하는 것은 잘 했지만,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는, 저보다 더 넉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부생 때 학교를 다니며 황금빛 동전쿠폰을 넣고 먹었던

1,700원짜리 식사가 제게 황금빛 꿈을 꾸게 해주었다는 것을 자식을 키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와 천원의 식사를 보며, 예전에 학교가 제게 베풀었던 나눔을 이제는 제가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기부를 하고, 작은 행동과 적은 시간에서부터 천천히 나눔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눔이 남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사실은 나를 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근래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 있는데, 이곳에도 작은 노력과 적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이 많이 있었습니다. 홈리스(homeless)를 돕거나, 길가에 버려진 수많은 쓰레기를 현지 학생들과 1시간씩 줍는 일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수많은 나눔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갈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제 글을 좋게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모두 나눔의 행복 느끼실 수 있는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02.27. 공모전 수상자  
박상민

• 제 8 회 •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 최우수상



## 최우수상

# 황금빛 식사쿠폰으로 황금빛 꿈을, 천원의 식사로 나누는 꿈을.

박상민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학과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 부터는 가끔 학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부모님이 계속 살고 계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아이를 잠시 맡기고 아내와 둘이 데이트를 하러 오기도 했고, 때로는 부모님,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오기도 했습니다. 올 때마다 매년 느끼는 것은, 우리학교의 아름다운 자연과 자유로움이 오히려 졸업을 하고,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고 나니 더 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총장잔디 근처를 함께 걸으며, 이 곳 저 곳 바뀐 건물들과 공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학생회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진열된 메뉴들을 보며 무엇을 먹을지 고르고 있노라면 저는 다시 한번 황금빛 식사쿠폰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가족들에게 할라치면, 아내와 어린 아이는 이제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외울 지경이라고 말해 가족들을 웃음 짓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가족들이 웃으면서 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그 황금빛 식사쿠폰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2010년대에는 주로 세 가지 메뉴를 학생회관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가장 비쌌던 것이 4,000원에서 5,000원 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저렴했던 메뉴는 1,700

원짜리였는데,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저는 다른 메뉴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1,700원짜리 메뉴를 사면 식권으로 동전처럼 생긴 황금빛 식사쿠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같이 공부하던 구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황금빛 동전을 길게 탑처럼 쌓아놓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은 4,000원, 5,000원 식사가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1,700원짜리 식사도 굉장히 훌륭했었습니다. 국과 밥, 김치정도만 나와도 이미 원가를 초과했을 법한데, 학교와 영양사 선생님, 조리를 도와주는 분들께서 어떻게 마술을 부리신건지 고기와 계란, 샐러드로 각종 영양소를 빈틈없이 채워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정말로 1,700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줄 알았습니다.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혹은 요리를 적절하게 잘 하기만 한다면 1,700원으로 이 모든 식단이 가능하리라 철없이 생각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백 번의 황금빛 동전쿠폰을 식권함에 넣고 나서, 원하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고 직장인이 되어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게 되니 자연스럽게 요리를 해야 될 날이 많아졌고 마트에서 장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학교가 주는 밥만 먹었던 저는 그 때가 돼서야 비로소 시장물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날 제게 빈틈없는 영양소를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챙겨주었던 학교는 마술을 부린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날 저녁, 저는 식탁앞에서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며, 아내에게 오

늘의 깨달음과 지난날의 기억들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느새 가슴이 먹먹해진 제게 아내가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우리도 또 다른 학생들이 마술이 부려진 요리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나누자라고 제게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해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찾아간 학생회관에서 천원의 식사라는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딱 옛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황금빛 동전쿠폰이 천원의 식사라는 더 저렴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학생들의 식판을 둘러보니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해진 마술사분들이 요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식권을 발급받기 전 예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라 주위를 살펴보니 천원의 식사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 있는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1,700원짜리 식사로 제가 건강하게 생활하며 꿈을 이룬 만큼, 이제는 제가 다른 학생들이 튼튼하게 자라 또 다른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마술에 동참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함께 공부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친구들에게 전화해 함께 기부하자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제 말에 공감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함께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후배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행정대학원에서 국내외 정책스터디 소모임 마지막날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냐는 외국인 친구의 질문에 이

렇게 대답한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황금색 식사쿠폰이 내게 황금빛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천원의 식사를 통해 나눔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자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황금빛 식사쿠폰과 천원의 식사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 제 8 회 •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 우수상



## 햇살을 믿는 이들을 위하여

김정빈

의과대학 의예과 선임주무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합격자 등록을 하러 간 2월의 어느 날, 캠퍼스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낯선 학교를 둘러보며 길을 찾느라 헤매기도 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 동안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를 듣고 좋은 선후배 동기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학업을 이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학 생활 중에서 떠오르는 힘들었던 순간들은 공부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을 정도입니다. 자녀가 셋인 가정이라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분산하기 위해 형과 교대로 군입대를 하고, 복학한 뒤에도 졸업반까지 쪽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장학금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선정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고 신양문화재단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4학년 1학기가 될 때 세 번째로 지원한 신양문화재단 장학생에 추가로 선발되어 마지막 학년은 등록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받아서 걱정없이 교생실습과 졸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신양장학생 수여식에 참석한 날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 건강 관계로 말씀을 하실 수 없었던 신양 정석규 이사장님께서도 휠체어

를 타고 오셨고, 대리인께서 대신 읽어주시는 인사말씀을 들으며 정말 어렵게 선정된 장학생이니 언젠가 반드시 이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신양문화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한 뒤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석규 이사장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고, 그분께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바쁜 생활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좋은 기회가 닿아 모교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공대, 인문대, 사회대에 위치한 신양학술정보관을 이용할 때마다 이사장님이 주셨던 도움과 나눔을 떠올렸습니다. 인문대에서 근무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아주 작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기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신양문화재단 측으로부터 장학생 출신 동문이 기부를 약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양문화재단이 장학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2000년경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넘게 배출된 수많은 장학생들이 나눔을 함께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아쉽고 슬프게 생각되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형태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저는 미미하게나마 첫걸음을 시작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양문화재단에서 저에게 후원해 주셨던 장학금은 250만원씩 두 학기, 즉 500만원이었고 저는 매월 1만원씩 기부를 약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500개월, 즉 41년 이상 기부해야 받았던 만큼이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늘려가야만 제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 돌려드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졸업 20년, 30년과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부 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양 정석규 이사장님의 호 신앙(信陽)은 '빛을 믿는다'라는 뜻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면학의 뜻을 놓지 않는 후배들을 위하여 밝은 빛을 비춰 주셨던 그분의 뜻과, 신양문화재단의 사명을 이어받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및 발전재단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장학생 동문들이 나눔의 뜻에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저도 보잘것없는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음에 자부심과 영광을 느낍니다.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이 시기에, 따뜻한 햇살을 믿는 모든 이들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발전재단, 신양문화재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천 원에서 시작된 이야기

박수진

서울대학교 기부자

‘천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짧은 그 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부끄러움, 민망함, 기쁨과 보람. 이것은 의도찮게 ‘천원의 식사’에 참여한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편집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분들이 읽으시는 동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학교 안에 동창회 사무실이 있어 학교 소식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교를 도울 일이 있으면 서울대 동문계서 애교심으로 동참해 주십사,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천원의 식사’ 캠페인이 그랬습니다. 참신하게도 키오스크 기부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기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 학생회관 1층 ‘천원의 식사’ 기부 키오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삼아 카드로 기부를 해봤습니다. 결제액은 1,000원.

이 1,000원이 누군가의 한 끼 식사값이 될 수 있다니. 잠깐 기분이 묘했지만 살면서 기부는 ‘언젠가 돈이 모이면’, ‘좀 대단하게’ 해보자고 생각했던 저에겐 대단히 도움이 되진 않았으리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순수한(?) 의도의 기부가 아니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 3월의 어느 날 ‘천원의 식사’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학생식당에 아너월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 원을 내셔도 새겨

드립니다’란 문구에 ‘설마’ 생각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학교 소식이니, 취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아너월 제막식. 학생 식당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파란 아너월, 빼곡한 이름들 속에 정말로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초봄의 차가운 공기 속 기부자에 대한 환대는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저의 작은 기부 액수는 많은 기부자가 모인 그곳에서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형 누나들 밥 잘 먹고 공부하라고 용돈을 모아 기부한 초등학생, 4년치 기부를 미리 약정해 두시고 ‘4년 후 살아 있으면 죽을 때까지 기부하겠다’ 말씀하신 구순의 교수님, 본인도 ‘천원의 식사’ 대상이면서 받은 도움의 몇 배를 기부한 재학생....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이름이 나란히 있어도 될까? 아니면 글씨 크기라도 좀 작아야 하는 것 아닐까. 다른 기부자들이 당신들의 이름 앞에서 뿌듯한 얼굴로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모른 채했습니다. 학교는 이날 기부자들을 위해 학생들이 먹는 천원의 식사 시식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그날 아침 ‘천원의 식사’ 메뉴인 마파두부의 맛있는 냄새를 뿌리치고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한 번 더 느꼈던 건 5개월 후였습니다. ‘천원의 식사’ 캠페인 1주년 성과보고회 ‘해피 천샤 데이’를 앞두고 어김없이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마침 총동창회에서 이날 ‘천원의 식사’ 기부금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여 취재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기부자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가는 것’이라 되새기며 행사가 열린 관악캠퍼스 미술관으로 향해, 안내를 받으며 얼떨결에 기부자석에 마련

된 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심, 그동안 뜨겁게 전개된 ‘천원의 식사’ 캠페인의 성과가 궁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금 시작 1년 만에 1,500여 명이 7억 3000여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 발전재단에선 “천원의 식사 약 21만끼 분”이라고 했습니다. 금액별 참여자 수를 보니 사실, 저처럼 소액을 기부한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소액 기부 또한 평소 대단하다고 생각해왔던 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대단치 않은 것 아닐까’ 움츠러든 저는 뜻을 함께 하는 기부자들을 보며 용기가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재단은 금액의 대소를 떠나 한결같이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건 액수가 아니라 기부하는 보람과 기쁨을 알아채지 못했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동창신문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시험과 과제와 아르바이트에 치이면서도 선뜻 시간을 내어 주던 학생들. 비좁은 마을버스 안에서 발을 밟고 꾸벅 인사하던 얼굴, 취재로 오며가며 보았을 때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던 모습. 그 중 한 명은 내가 낸 천 원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웠겠구나. 그 힘으로 견고 공부하고 웃었겠구나. 절로 어깨가 펴졌습니다.

‘천원의 식사’가 아침 식사로 첫발을 떤 무렵엔 저 또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관악캠퍼스 어느 곳의 동창회 사무실에서 수년을 보내며 하루 한 끼였던 ‘천원의 식사’가 두 끼가 되고, 세 끼가 되어 자리 잡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준 ‘천원의 식사’가 지난 시간을 넘어 더욱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은 매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천 원으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외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두 번째 '천원의 식사' 아너월 설치를 앞두고 드디어 기부금을 갹신했습니다. 막상 제 이름이 새 아너월에 빠진다니 왠지 모르게 섭섭했달까요. 여전히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나누는 기쁨을 알고 난 후 기부 약정 버튼을 누르는 맛은 달고 개운했습니다. 기부의 기쁨을 알게 해 준 천 원이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아너월의 제 이름 앞에서 셀카를 찍어봐야겠습니다.

• 제 8 회 •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 장려상



## 하루 식비 삼천 원에 기뻐하던 나에게

고은희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야 안녕? 나는 아직 학생인데, 너는 어느덧 사회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꿈을 멋지게 펼치고 있구나. 내가 다 뿌듯한 마음이 들어. 너와 함께한 대학 생활을 떠올리면 즐겁고 보람찬 일들만 가득했던 것 같아. 그중 하나는 일찍이 도서관에 나와 아침 식사로 함께 천 원의 학식을 먹던 일상이었어.

당시 너는 원룸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시원에 살았고, 요리를 해 먹기도 힘들었던 환경이었기에 학식을 자주 먹었지. 우리는 천 원의 식사가 없던 때부터 학생회관 B식을 애용했어. 제일 가성비가 좋았거든 ㅎㅎ 그러다 어느 날 아침식사로 제공되는 천 원의 식사를 발견했을 때 우리 함께 학식계의 혁명이라며 추운 겨울에도 거의 매일 아침 학생회관에서 만나 밥을 먹고 중앙도서관으로 향했던 기억이 나.

이렇게 따뜻한 밥과 국을 천 원에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 신나게 먹던 와중에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갔는데, 그 모습을 뉴스에서 보게 되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 뉴스에서 천 원의 식사는 수익은커녕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구.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 천 원의 식사는 천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 한 켠으로는 저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이라면 오래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어.

그렇게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보내고 각자의 길을 갔고, 나는 직장생활을 하다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웬걸, 놀랍게도 천 원의 식사는 여전히 천 원이었어!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식사를 이어지게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문득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나더라고. “셔틀버스도 공짜라서 수업 없는 날 하루에 세 번 와서 먹어! 그럼 하루 생활비가 삼천 원이야! 대박이지?” 수입도 없는 대학원생인 내가 학교에 기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순전히 너의 그 말 덕분이었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의 너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고 싶었어. 추운 겨울 우리가 배움을 걱정 없이 꿈을 좇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마음을 모아준 것처럼, 그때의 우리에게, 그리고 현재에도 학교 열람실에서 끼니를 걱정하고 있을 수많은 너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관정도서관 여기저기에 적힌 기부자들의 이름을 보며, 학교에 기부하는 일은 아주 성공한 부자 졸업생들이 하는 것인 줄 알았어. 기부라는 것은 여유가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도움인 줄 알았어. 이제 나는 내 생각이 틀렸었다는 것을 알아. 여유가 많지 않아도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때 즐거워하며 끼니를 때우던 우리, 지금도 어딘가에서 천 원의 학식 덕에 마음놓고 공부하는 우리와 같은 친구들에게 단돈 천 원, 만 원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해.

친구야. 나와 천 원의 학식을 즐겁게 먹어줘서, 천 원의 학식의 가치를 알려줘서 많이 고마워.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경험한 가치

를 지금의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천 원의 학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됨으로써 늦게라도 너에게 보답하려 해. 그때 우리가 맛있게 먹은 것은 천 원어치 밥이 아니라 훌륭한 어른들의 따뜻한 응원이었던 것 같아. 작지만 큰 마음으로 나도 친구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게! 그리고 혹시 알아? 우리가 언젠가 관정도서관에 이름을 새기는 선배가 될 지 ㅎㅎ

너와 천 원 그 이상의 꿈을 나누던 은희가.

## 천원의 식사, 따뜻한 한 끼가 준 큰 울림

귀쓰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민이식위천(民以食為天)’이라는 말은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늘과도 같은 중요한 일임을 뜻합니다. 전공의 영향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중요시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익숙했던 생활 환경을 떠나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언어 장벽, 학업 스트레스, 정서적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의 제약 속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 끼를 챙기는 일이 유학생으로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학교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천원의 식사'는 저에게 따뜻한 한 끼 이상의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단돈 천 원으로 맛있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채워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와 같은 유학생들에게 이 소중한 프로그램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5월 기준으로 234,453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학업과 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간식과 야식 섭취

증가, 결식 비율 상승 등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 습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바쁜 학업과 낯선 환경 속에서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폭식과 과식을 반복하며 정서적 불안과 짜증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던 중, 학교 이메일을 통해 ‘천원의 식사’를 알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제게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아침 천원의 식사를 챙겨 먹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3~4번만 아침을 챙겨 먹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진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아침 식사가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원의 식사’는 단순히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메뉴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친절한 직원분들이 반찬을 추가하거나 조정해주는 세심한 배려와 쾌적한 환경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에게 나눔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 영향은 개인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으며, 저 또한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천원의 식사’는 많은 사람들의 나눔과 배려가 만들어낸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인 저에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여 몸과 마

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학업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가진 따뜻함과 그 안에 담긴 나눔의 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천원의 식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저 역시 앞으로 학교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나눔이 가진 힘을 믿고, 작은 실천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 그녀와 아이, 그리고 나의 여름

박선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받은 게 많은 삶이다. 익명의 후원자들 덕분에 따뜻한 천식을 자주 먹었고, 학외 장학금 재단 덕분에 등록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다.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이들이 많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받은 게 많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했다. 소액의 정기 후원은 계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대학생의 상황에 큰 후원을 할 수는 없었다. 전문적 지식으로 재능 나눔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자격증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일까 늘 고민했다. 그리고 그 답을 마침내 찾았다.

지난여름 나는 이주여성상담소에서 실습을 했다. 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다수의 이용자는 가정폭력 관련 문제로 법률 서비스, 비자 정보, 쉼터 정보 등 안전한 탈폭력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 무더운 날씨에 출근만으로도 기진맥진한 여름, A씨와 그의 아들을 만났다. 상담소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동안 나는 아이랑 넓게 펼쳐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아이는 두 시간, 세 시간이 넘어가는 긴 시간에도 한 번의 투정조차 부리지 않고 다소곳이 앉아 그림을 그렸고, 이따금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티 나지 않게 들으려고 애썼다. 뿔뿔뿔망한 눈에는 1학년

아이가 가질 수 없는 성숙함이 담겨 있었다. 잠깐의 휴식 시간 후, 나는 진술서 작성을 돕기 위해 A씨가 있는 방으로 갔다. 영어를 곧잘 하는 그녀가 영어로 말하면, 내가 한국어로 문서에 번역해 정리를 해두는 업무였다. 그녀가 보여준 사진들과 이야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적나라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나였으면 견뎌내지 못했을 폭력에서도 그녀는 차분했다. 과거를 회상하며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그녀의 눈물에 나 역시 코끝이 시려왔다. 가정폭력으로 너털너털해진 마음을 내보이면서도 이토록 상대를 배려하고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다니. 이토록 반짝이는 눈빛을 가질 수 있다니. 당장이라도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주민으로서 그녀는 불이익이 많았고 법률적인 절차는 최소 10개월, 길면 1년 반까지 걸린다 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 실습이 끝났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마음에 그녀가 아른아른 남아 있었다. 꼭 닮은 모자(母子)의 동그랗고 활기찬 눈이 마음속의 돌덩이처럼 가시지 않았다. 상담소 선생님에게 그녀 관련 업무가 있다면 돕고 싶다는 연락을 남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로 했다. 그녀가 했던 고민들, 그녀를 괴롭혔던 것들부터 시작했다. 그녀가 쉼터 생활이 힘들어서 원룸에서 사는 것을 떠올리며 이를 개선하고자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며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좋지 않은 경제적 형편에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 노심초사하던 것을 생각하며, 한부모 이주여성 자녀 대상의 공부방에 봉사자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주여성 가정폭력’이라는 키워드만 들리면 학회, 교육, 세미나 가리지 않고 들으러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소에서 A씨의 가정법원 가사 조사가 시작되는

데 통번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법원 앞, 나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며 긴장하지 않은 척 활짝 웃어 보였고, 그녀는 화답하듯이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한 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가사조사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이 나는 그녀를 보며, 그녀가 언어적 장벽과 함께 혼자 이 공간에 남겨지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세 시간의 조사 후, 고맙다는 거듭되는 그녀의 인사에 민망해져 다음 가사 조사에서 만나자는 인사와 함께 헤어졌다.

그사이 마음속의 돌덩이도 차차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을 생각하며 시작한 교육봉사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크고 있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친구는 착실하게 재능을 키워 갔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더러 잘하고 더러 못했다. 사춘기가 와서 선생님한테 톡톡대다가도 예의를 지켰고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투닥투닥 싸워도 곧잘 화해했다. 아무지게 다 같이 저녁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A씨의 미래를 남몰래 상상했다. A씨도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밝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텐데... 하면서.

오래 걸리는 법률 절차에 따라, 마지막 A씨의 가사 조사를 끝내고 작은 편지를 건넸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을 여럿 만났다고, 당시를 회상하면 여전히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파하지만 지금의 생활에 만족해하고 행복하더라고. 이혼 후에도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다고. 그중 하나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온갖 공모전에 당선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학원을 별로 안 다니고도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당신의 앞날에도 반짝이는 순간들이, 당신의 아들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듯한 편지를 보냈다. 그날 저녁, 위로를 건네줘서 고맙다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반년이 지나서일까, 당시에 너무 고마웠다는 말로 시작하는 그녀의 메시지를 받았다. 법원 판결이 잘 나와서 아이의 양육비 걱정이 덜었고 아들과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생님의 앞날에도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시지를 한참 멍하니 들여다봤다. 마음이 너무 몽클하고 따뜻해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낮가리면서도 예의 바르던 아이와 눈빛이 인상적이었던 그녀. 가벼워지는 마음의 돌덩이와 그 자리를 가득 채운 따뜻한 온기.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분야에 내가 오래오래 마음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나는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로도 1년간 쉼터 부속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분기별로 아이들을 보러 간다. 여전히 이주여성을 위한 통번역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나에게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 잠려상나

# 아이들의 상상은 다음 문장에서 계속됩니다: 섬마을 재능 기부 이야기

윤승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2018년, 학부 졸업을 앞둔 여름. 진로는 막막했고, 준비하던 시험마저 망치면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었다. 그렇게 나의 도피처가 된 곳은 육지에서 배로 1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전남 완도군의 작은 섬마을, 금일도였다. 그곳에서 나는 여름방학 동안 임시 교사로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글쓰기를 가르치게 되었다.

하지만 섬마을이라는 낭만적인 배경과 달리, 아이들은 글쓰기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고학년 아이들은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롤’, ‘배그’, ‘포켓몬고’ 같은 게임 이야기만이 그들의 관심을 끌 뿐이었다. “선생님, 글쓰기 재미없어요. 영화 보여주세요!”라는 아이들의 말에 나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할 방법이 절실했다.

나는 고민 끝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소설 속 위대한 문장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해리가 처음 받았던 초대장을 떠올리며 문장을 칠판에 적었다. “OOO에게, 귀하에게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자, 이 다음 문장부터 너희만의 소설을 써볼래? 두세 문장만 써보자. 어떤 마법사가 되고 싶어?” 이윽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스티븐 킹의 소설 속 문장을 인용했다. “당신은 여기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볼까? 이 질문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한층 더 끌어냈다. 어떤 아이는 공포 이야기를 썼고, 또 다른 아이는 영웅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4학년 H학생이 쓴 글이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에 없을 테지요. 당신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당신은 그 품에 고이 안겨 갖고 있었습니다.’ H학생은 학생들 중 상상력과 감수성이 가장 돋보이는 아이였다. 조손 가정에서 자란 탓에 또래보다 성숙해 보였던 그는 수업 내내 조용했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학생의 글 속에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렵듯이 상상하고 느꼈을 법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한 장면을 꺼내는 듯한 섬세함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H학생뿐만이 아니었다. 게임과 핸드폰에만 빠져 있던 아이들도 점차 글쓰기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자신만의 마법 세계를 만들어냈고, 또 다른 아이는 금일도의 바위섬에 숨겨진 전설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아이들의 글은 처음에는 거칠고 문법적으로 엉성했지만,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순수함과 창의력이 담겨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다듬어 주고, 작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아이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 수업 마지막 날, 나는 아이들에게 각자 쓴 글을 발표하도록 했다. H학생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글을 읽었다. 바다를 달릴 수 있는 마법 운동화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고, 아이들 모

두가 숨죽여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설 속 주인공은 단걸음에 먼 나라에 있는 엄마를 만나고, 할머니가 건강해질 수 있는 마법의 약을 구해 섬으로 돌아오는 모험을 그려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실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그날, 나는 아이들에게 글쓰기가 단지 학교 과제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금일도를 떠나는 날, 나는 배를 타고 섬을 뒤로하며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값졌는지를 곱씹었다. 아이들이 보여준 소중한 감수성과 상상력은 철부선이 바다를 가르며 남긴 물이랑처럼 내 마음에 여운이 되어 남아 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도피 삼아 떠난 곳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나눔이란 무엇일까. 가진 것이 없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막상 나누고 보면 그 무언가는 예상치 못한 값진 형태로 나에게 돌아온다. 아이들과 나누었던 그 여름의 시간은 내게 그런 깨달음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상작 내용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 콘서트홀 나눔 이야기

최영리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 음대 기악과 학부모

몇 달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궁금증에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봉투를 열어 보니, 고급스러운 알림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주 카탈로그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악대학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안내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였을 때 받았던 누런 갱지 알림장과는 사뭇 다른, 세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림장의 앞장에는 어여쁜 연노랑 툄립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그 맑고 따듯한 분위기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음악대학이 새 출발을 위해 54동과 55동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고, 49동 콘서트홀에서는 ‘콘서트홀 좌석기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지도교수님!

남편에게 곧바로 연락해 알림장 내용을 전하며, 콘서트홀 좌석기부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부가 둘째 아이의 모교인 음악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첫째 아이와 저희 부부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성장에 보탬이 된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 모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그날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기부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웃으며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 "기부금? 차라리 그 돈 저한테 주면 안 돼요? 제가 더 잘 쓸게요."

엄마: "우리가 너를 위해 이미 열심히 지원하고 있잖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마. 하지만 이번 기부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어."

아빠: "네 이름이 모교 콘서트홀 좌석에 새겨져 후배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거야.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음악이 연주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을지 생각해 봐."

엄마: "그리고 기부금이 모여 음악대학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서울대 음악대학이 세계로 뻗어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너도 서울대 음악대학 졸업생으로서 더 자랑스러워 질테고."

그렇게 가족 모두의 뜻을 모아 좌석 기부를 결정하여 학교에 연락하였고, 좌석 명패에는 아이 이름과 'Frei Aber Einsam'이란 문구도 함께 새겨 넣기로 하였습니다.

이 문구는 독일어로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라는 뜻으로, 독일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립적인 음악 세계를 지키기 위해 평생 자유로운 작곡가로 남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 속에서 창작에 몰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Frei Aber Einsam'은 브람스와 그의 동료들이 주제로 삼아 곡을 작곡했던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음악가로서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고독을 마주하더라도 자유롭게 창의적인 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이 문구를 명패에 새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문구는 저희 아이에게도,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2월5일에 아이의 수업에서 마련한 작은 연주회에 초대를 받아 콘서트홀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Farewell Concert Johannes Leertouwer"라는 제목으로 열린 바로크 음악 콘서트였습니다. 아이는 콘서트 전반에서 솔로 연주자를 위한 반주를 하였고, 특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에서 듀엣 솔로로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과 함께 'Frei Aber Einsam'이 새겨진 명패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 연주를 감상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난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창시절의 기억, 아이들을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시간들, 그리고 서울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음악으로 제게 감동을 주듯,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 감동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작은 나눔이 서울대 음악대학의 더 큰 음악적 울림으로 이어지고, 그 울림이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 함께하는 나눔의 여정  
소중한 이와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전화 02-871-8004 | 팩스 02-871-2458 | 이메일 snuf@snu.ac.kr | 홈페이지 www.snu.or.k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 8 회 •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